

인간의 한계를 식별하는 예지를 갖고

사이타마 교구 주교 따니 다이치

폭염 속의 여름이 끝났다. 간사이(関西) 전력의 오오이겐빠쓰(大飯原發) 이외의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이동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기업의 절전 노력, 전력 회사의 노력에 의해 충당할 수 있었다.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자연 에너지의 보급과 발전을 촉진한다면, 보다 지구환경에 친화적인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이 만들어내는 과학기술에는 진보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을 때야말로 진보가 있을 수 있다.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는 진보란 없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인간의 약함이기도 하다. 안전신화는 그 한계를 식별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텔레비전에서 본 이탈리아의 한 할머니. 이탈리아에서 원자력 발전의 시비를 둘러싼 국민투표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일본인처럼 성실하고 확실하게 하는 국민들조차도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탈리아인처럼 아무렇게나 하는 국민이 원자력 발전소를 가진다면, 정말로 큰일이 될 것이예요.” 자신도 모르게 웃고 말았지만, 이 할머니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분별하는 예지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후쿠시마 제 1 원전 사고의 막대한 희생, 여전히 수습하고 있지 않은 원전 사고. 페로 시킬 때까지 40년 이상. 그때까지, 계속 위험한 상황이 지속됨에는 변함이 없다. 사고 조사 위원회의 보고도 나오지 않는 시점의 오오이겐빠쓰(大飯原發)의 재이동. 그것은 무식의 소치로 분별하지 않는 행위다. 그 후, 국회사고조사위원회 등의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 아직, 사고도 수습하고 있지 않았고, 원자로 등의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단계에서, 최종보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사용을 다한 핵연료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지 않다.

원자력 행정의 은폐체질, 정보의 비공유, 비밀회의, 주민투표를 부결하는 의회, 자기번호와 눈앞의 이익만을 지키려는 보신. 이는 인간의 한계를 분별한다는 숭고한 정신 이전의 인간 품위로서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그들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고 있다.

하느님 앞에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 아니, 적어도 주민의 의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 사고의 비참한 현실, 과학기술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인간의 한계를 분별할 수 있는 예지를 지니며,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인간의 손으로 감당할 수 없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당장 폐지하는 결단 이외에는 해답이 있을 리 없다.

사이타마 교구 내에서는 1999년에 JCO 임계사고(臨界事故)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우카이(東海) 제 2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그곳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100 만인의 피난민이 생겨난다. 우리도, 인간의 한계를 분별하는 예지를 지니고 있다면, 탈(脫)원자력 발전을 더욱 호소해야만 한다. 탈(脫)원자력 발전을 위한 집회에서 사카모또 류우이찌(坂本龍一)씨는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침묵은 야만이다.” 라고 말하였다.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장래의 어린이들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